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5년 2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뮌헨공과대학교(TUM)		
학 번	2021-19537	이 름	유진
소 속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4월 3일
작 성 자	유진 (유진)

I. 교환 파견 동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외살이에 대한 막연한 로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막연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교환학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는 무조건 교환학생을 경험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제가 파견된 대학은 독일 뮌헨에 있는 뮌헨공과대학교(TUM)입니다. 뮌헨공대는 독일의 명문 공대 TU9에 속하는 학교로, 현지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뮌헨의 경우 뮌헨공항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뮌헨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가격대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인근 공항인 뎀링겐, 뉘른베르크 공항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뮌헨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1~2시간 정도 이동해야 하지만 해당 공항에는 라이언에어가 다니므로 유럽 내에서 이동할 때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입독 시에 뮌헨 공항으로 항공편을 끊었는데, 함께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 중에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오는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뮌헨중앙역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입학허가서 수령 이후 비자를 받기까지 준비할 내용 등)

비자의 경우 늦게 신청할 경우 비자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에서 입학 허가 메일을 받자마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다른 서류를 준비해 둔 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5년 겨울 파견 기준으로 파견교에서 6/3에 admission letter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6/10에 온라인으로 비자 발급 waiting list에 등록하였고, 6/30에 대기가 종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으며, 7/4에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8/8에 preliminary review가 종료되어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였으며, 8/11에 인터뷰 진행하여 8/20에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수령 전화를 받았습니다.

6~8월경에 비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처리 속도가 느리다 보니 한국인 교환학생 중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독일에 온 경우가 50%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독일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생겐 조약에 따른 3개월 이후에는 독일 밖으로 여행을 나갈 수 없습니다.

2. 숙소 종류와 지원 방법(교내 기숙사, 교외 기숙사, 아파트, 셰어하우스 등)

뮌헨 기숙사 지원 안내는 모두 이메일로 발송 받게 됩니다. 뮌헨에서 집을 구하려면 월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메일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를 교환학생 우선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교환학생은 기숙사를 제공받았던 것 같습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dormitory, insurance, textbook 등)

뮌헨공대에서는 한 학기에 한번 semester를 지불해야 하며, 관련 안내는 이메일로 통지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비자 신청 시 TK 공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보험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한 달 144유로) 입독 후 이를 해지하고 사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뮌헨 내에 있는 기숙사를 무작위로 배정받게 되는데, 저는 신청할 때 가장 저렴한 기숙사를 원한다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기숙사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Josef-Wirth-Weg 19에 거주하였으며, 월세는 501유로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한달 18유로의 라디오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편함에 관련 내용이 발송되므로 잘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귀국 후 다음 학기 관악사 입주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유효기간 잘 계산해서 미리 결핵 검사하신 후 출국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에서 검사 후 한국으로 우편을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IV. 학업

1. 수강 신청, 수강 정정, 수강취소 방법

뮌헨공대는 수강 신청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수강 신청과 시험 신청이 따로 있어 수강한 과목의 시험을 꼭 볼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과목이 학기 말까지 수강신청과 수강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language course나 practical course의 경우 개강 전에 등록해야 하니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는 Tumonline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전공과목이 전체 수강 학점의 60%를 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담당자분께 문의한 결과

해당 조건 일치 여부는 학기 초에만 확인한다고 하며, 저는 이를 만족하지 않고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기에 유의미한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학과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수강 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있으면 소개하기

제가 들었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Materials Design (Johnnatan Rodriguez Fernandez 교수님)

: 강의 파트와 실습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강의에서는 재료공학부 전공 필수 내용(열역학, 기계적 거동) 중 일부분을 아주 얇게 다룹니다. 실습에서는 MatCalc를 이용해서 재료의 미세구조와 kinetics, 기계적 성질을 시뮬레이션하는 법을 배웁니다. 휴강하는 날도 많았고, 과제도 없는 데다가 평가는 기말 프로젝트 발표로만 진행되므로 학업 부담이 매우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MatCalc를 이용한 니켈 기반 합금 설계였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에서 구술시험도 함께 진행하는데 예상 질문 10개를 사전에 알려 주셔서 강의 내용을 공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강생은 총 5명이었는데 성적은 1등은 1.0, 2등은 1.3, 3등은 2.0, 4등은 2.3, 5등은 3.0으로 주셨습니다. 프로젝트만 조금 신경 쓰면 성적을 받기 매우 수월하므로 추천해 드립니다.

-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A1.2. (Arianna von Caprivi Caprara de Montecucculi 교수님)

: 서울대에서 초급독일어1을 수강했었기에 A1.2를 신청했습니다. 학점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독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가는 12문장의 짧은 글 쓰기 과제 3번과 기말고사 한 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마다 편차가 크지만 저희 반의 경우 기말고사는 오픈북이었으며, 문제 또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니 수강생의 66%가 1.0을 받았을 정도로 매우 후하게 성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B2 (Tina Schrier 교수님)

: 역시나 학점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부담 없이 듣기 좋습니다. 로드는 글쓰기 과제 1번과 발표 1번이 전부였습니다.

3. 외국어 습득 요령(현지 언어 공부했던 방법, 현지 친구 사귀기 등)

현지 친구들은 뮌헨공대의 Language café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Language café는 매주 수요일 가헝캠퍼스와 메인캠퍼스에서 열리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인데, 한국어 테이블에 있으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정보는 TUM ES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또한 같은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블록국이나 코인육수는 현지 한인 마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물품 중 하나입니다. 처음 입주하고

나서 적응 기간이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간단하게 요리해 먹기 좋으므로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아시아마트에서 거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당시 환율, 외식비, 교통비, 관리비, 간식비, 마트에서 장보기 등)

제가 슈페어콘토를 만들 당시 환율이 1580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환율이 계속 올라 처음 유럽에 도착했을 때는 1610원, 귀국 당시에는 1710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슈페어콘토를 만들면서 한 번에 6000유로를 환전해 두었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뮌헨의 경우 다른 독일 도시보다도 외식비가 비싼 편입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인 케밥이 8유로 정도입니다. 다만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면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빵과 과일이 정말 싸입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대중교통, 통신 등)

독일에서 생활하려면 은행 계좌와 독일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저는 은행은 와이즈, 통신은 알디톡을 사용했습니다. 네이버에 가입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둔 블로그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교환학생 모임 등)

학기 시작 전 10월 초에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Culture creatures/Party animals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사진과 내용은 TUM ESN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는 culture creatures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함께 신청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선착순은 아닌 것 같습니다.

5. 안전 관련 유의 사항(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지, 도보 이용할 때 주변을 신경 쓰기 등)

주변에서 뮌헨은 안전한 도시라고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위험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으로 출국하기 전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마치고 나니 이제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홀로 서 보는 경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경험이 저의 세상을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또 바쁜 한국에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